

-(으)ㄹ까 말까 하다

~할까 말까 하다 — 망설임

어떤 일을 할지 말지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형태 자체가 할까, 말까라는 두 선택지를 맞세워 놓고 그 사이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까 말까	가다 → 갈까 말까
받침으로 끝남	-을까 말까	먹다 → 먹을까 말까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까 말까
다른 동사와 함께	고민하다, 망설이다	갈까 말까 고민했어요
명사 앞	-(으)ㄹ까 말까 한	들릴까 말까 한 소리
하는 쪽으로 기움	-(으)ㄹ까 하다	갈까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짧은 형태를 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만들다는 다음이 됩니다: 만들까 말까. 이 표현은 동작 동사에만 씁니다.

망설이는 사람은 보통 말하는 사람 자신이며, 하다 대신 고민하다나 망설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: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.

두 번째 쓰임은 무언가가 겨우 느껴지거나 측정될 경계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겨우 들리는 소리 같은 것입니다. 이때는 관형형 -(으)ㄹ까 말까 한이 명사에 붙습니다.

다음과 비교해 보세요: -(으)ㄹ까 하다 이것은 하는 쪽으로 기운 느슨한 계획입니다. 말까를 더하면 그 기울기가 사라지고 진짜 망설임이 남습니다.

■ 예문

- 1 모임에 갈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.
- 2 살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어요.
- 3 말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.
- 4 직접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.
- 5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대답했어요.
- 6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흐릿했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까 하다
-(으)ㄹ까 하다는 이미 하는 쪽으로 기운 부드러운 계획입니다. 말까를 더하면 균형이 맞춰져 진짜 망설임을 나타냅니다.

갈까 해요. (갈 생각이다) / 갈까 말까 해요. (결정을 못 하겠다)

-(으)ㄴ/는지
-(으)ㄴ지 -지는 간접 의문을 안에 넣는 것이고, -(으)ㄹ까 말까는 할지 말지의 딜레마만을 위한 고정 표현입니다.

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. (갈지 모르겠다) /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. (고민 중이다)

-(으)ㄹ까 말까 한
관형형은 겨우 느껴지거나 측정될 경계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겨우 들리거나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.

갈까 말까 해요. (망설임) / 들릴까 말까 한 소리 (겨우 들리는 소리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.
- 직접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- ✗ 예쁠까 말까 고민이에요.
-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.
이 구문은 할 수도 있는 행동을 저울질합니다. 형용사는 선택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냅니다.
- ✗ 들릴까 말까 소리로 대답했어요.
-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대답했어요.
명사 앞에서는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한이 필요합니다.